

우리들의 모습

신학생을 소개합니다

2025년 안동교구는 8명의 신학생들이 부르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구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주세요.



김정수 그레고리오
(송현동, 연구2)



이민우 테오필로
(봉화, 연구2)



최영식 아우구스티노
(휴천동, 연구2)



김기섭 요셉
(구담, 실습의 해)



김병욱 가브리엘
(용상동, 학부3)



심민성 디오니시오
(모전동, 군복무)



김윤성 바실리오
(주교좌 목성동, 학부2)



이상헌 베드로
(태화동, 학부1)

예비신학생 기본교리

세례성사는 어떻게 거행될까?

예신생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받은 순간을 기억하세요? 아주 어릴 때 세례 받은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나고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세례성사는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사제가 세례자의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기도는 하느님이 이제 세례자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물을 이마에 붓지만, 과거에는 실제로 몸 전체를 물 속에 넣었다가 올라왔어요. 그것은 이제 자신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 다음 사제는 다시 세례자의 이마에 성유를 바르는데, 이때 사용하는 성유를 '크리스마 성유'라고 해요. 이 성유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호칭과 비슷한 특별한 기름이지요. 그렇게 해서 세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제는 세례자에게 흰 옷을 입히거나 혹은 흰 미사포를 머리에 씌우면서 기도하지요.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 혹은 대모가 부활초에서 불을 붙인 작은 초를 세례자에게 건네주지요. 바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예식으로 하느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례받은 사실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학기를 힘차게 시작해요~!

글 출처 : 줄리아 크노프, 예비 신자 궁금증 105가지, 가톨릭출판사, 2014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3월 19일 요셉
대신학생 - 김기섭 (구담, 실습의 해)

기억해요!

1. 예비신학생 모임 개강미사 및 3월 모임

- 일 자 : 3월 16일(주일)
- 장 소 : 교구청

2025년 3월

예비신학생 편지



< 2025년 안동교구 대신학생 >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